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커리큘럼 연구 - 실용음악과 교육과정 중심으로

김관진
여주대학교 실용음악학과
e-mail:dms7800@naver.com

The Curriculum research to improve self-efficacy - Focused in popular music curriculum

Kwan-Jin Kim*

*Dept. of Popular Music, Yeosu Institute of Technology

요약

본 연구는 K-pop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음악을 배우려고 국내 실용음악과 유학을 결정하는 외국 유학생들도 매년 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K-pop의 근원인 실용음악 교육과정에 대하여 알아보려 한다. 국내 대학교 중 실용(대중) 음악 전공 개설 대학은 2년제부터 대학원까지 총 135개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매년 높은 입시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전공의 학과이며, 그 만큼 입학생들 학업성취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예상 된다. 그러나 실제로 입학생의 인원 대비 졸업 후 전문 음악인으로서의 진로를 선택한 수치는 입학 기준보다 매우 낮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국내 실용음악과의 시작으로부터 30년 지난 현재 국내 대학교의 실용음악학과 교육과정의 교과목은 음악 기초이론과 필수 이론을 제외하고 전체 70%이상의 실기 중심 교과목으로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교육과정의 교과목은 음악적 기술에 취중이 되어 있으며, 개인 능력의 실기 교육보다 삶의 많은 목표수행에 필요한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기술을 효과적으로 조직하는 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이 요구된다. 이에 전공생을 위한 교과 개발로 개인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신념이며, 행동의 선택과 수행, 그리고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능감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1. 서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실용음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 하고 있다.

“대중의 음악문화 향유를 목적으로 고전음악, 민속음악 등의 전통음악을 제외한 모든 음악을 가창하고 연주하고 창작하여 생산 보급하는 일”이라 명하고 있다.

K-pop은 음악의 장르를 넘어 국가이미지, 문화전파효과, 외교효과, 경제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많은 대학들에서 전문적인 대중음악인을 양성시키고 체계적인 교육을 시키기 위해 K-pop과 관련한 실용음악과, 대중음악과, 현대음악과 라는 명칭으로 학교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교육과정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실용음악 전공자를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학과이다.

2020년 현재 전국적으로 실용음악 전공 개설 대학은 4년 학사과정 72개 대학, 2년제 전문학사과정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학교는 19개 대학, 2년제 전문대학에서 전문학사과정의 전공심화과정으로 개설 한 학교는 4개 대학, 3년제 전문대학

에서 전문학사과정으로 개설 10개 대학 (전문학사 과정 5개 대학)에서 운영, 대학원 과정에서 실용음악전공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학교는 전국적으로 총 24개 대학에서 실용음악 전공을 운영, 4년제 사이버대학의 학사과정의 경우 전국적으로 총 6개의 학교에서 실용음악전공이 개설되어 있다.

매년 입시에서 가장 경쟁률이 높은 학과로 조사되고 있으며 실용음악학과와 모집 전공을 보면 기악, 작곡, 보컬, 싱어송라이터 전공으로 나뉘며, 가장 높은 지원자는 보컬 전공이 차지하고 있다. 2019년 수시 1차 경쟁률은 4년제 서울 소재 S대학교 347.40 대 1, 2-3년제 전문대학 안산 소재 S대학의 실용음악과 보컬 전공의 수시경쟁률 (여) 313.3 대 1, (남) 234.7 대 1의 경쟁률 현황을 보이고 있다.

실용음악 전공의 특성상 진로결정의 시기는 타 전공보다 이른 시기,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하는 학생들이 많은 만큼 실용음악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대학진학에 대한 의지와 열망이 매우 높음을 의미한다. 높은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실용음악전공으로 진로를 결정에 대한 예비대학생들의 관심과 미래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진로(career)는 한 개인의 전 생애과정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어느한 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진로는 개

인의 생애 직업발달과 그 과정 내용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것이다.[1]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진로교육 현황조사 : 대학 진로 취업지원 현황조사(2019)'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대학 생활에서 가장 고민하는 것은 '졸업 후 진로'인 것으로 나타났다(4년제 대학생 60.0%, 전문대학생 59.7%). 특히 졸업 후 진로 계획에 대한 질문에서는 '아직 잘 모르겠다.'로 대답한 학생의 비율이 4년제 대학생의 경우 전체의 22%, 전문대학생의 경우 15.1%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대학생들에게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실제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도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 진로선택 과정에 있어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확신성으로 직업과 연관된 의사결정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2]

따라서, 본 연구는 실용음악 전공생을 위한 교과 개발로 개인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신념이며, 행동의 선택과 수행, 그리고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능감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국내 대학 4년제 4개, 2-3년제 4개의 학과 교과과정의 실기와 이론 교과과의 비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실용음악 전공자들의 학업 만족도를 높이며, 대학 입학 이후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교육과정 교과목 개발을 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자기효능감 이론

자기효능감이란 자신이 어떤 일을 잘해 낼 수 있다는 개인적 신념이며 사고 양식과 정서들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의 결점에 집중하게 되어 상황에 맞서기보다는 어렵다고 미리 판단하게 되어 과제에 집중을 못하거나 포기하게 된다.

'효능감'은 심리학자 앨버트 반두라(Albert Bandura)에 의해 1977년 처음 사용되었고, 개인능력인 스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많은 목표수행에 필요한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스킬을 효과적으로 조직하는 생성적 능력이라고 정의된다[3]

Bandura(1986)는 자기효능감을 Perceived self-efficacy belief 라고 표현하였으며 현재 일반적으로 자기효능감이라는 번역되고 있다.[4]

Bandura는 인간 행동의 변화를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하여 기존의 행동주의적 경향을 고수하면서도 인지적 관점에서 인간은 결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환경정보를 탐색, 수집하고 처

리하는 능동적 존재로 인식하는, 과제지향적 자신감(specificself confidence)을 자기효능감이라 정의하였다.

사회인지이론은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특정의 목적이나 목표를 완수하고 장애를 극복할 때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노력한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자기효능감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4개의 정보적 근원을 그것들은 성공경험(Enactive mastery experiences), 대리적 경험(Vicarious experiences), 언어적 설득(Verbalpersuasion), 생리적 상태와 정서적 상태(Physiological and affective states)이다.[5]

자기효능감은 학교 학습과 다른 성취 활동 등과 특히 관련이 있다. 연구자들은 선택, 끈기, 성취에 대한 자기효능감에 대해서 가설적인 결과를 얻어왔다. Bets와 Hackett은 직업 선택에 있어 구조적이거나 사회적인 영향이 있더라도, 자기효능감이 이러한 외부적 영향의 중요한 중재자이며, 직업 선택에 있어 직접적인 전달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6]

2.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구성요소

Taylor와 Betz(1983)는 성공적 진로결정에 대한 믿음의 정도를 측정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이 척도는 다섯 가지 구성요소를 가진다. 25개의 단축형 척도에서 제시되는 구성요소는 자기평가, 직업정보수집, 계획수립, 목표설정과 문제해결 방식으로 다섯 개의 척도이다.[7]

국내 자기효능 주제의 연구(김혜주, 도승이, 2009, 김선화 박상연, 2014, 송주완, 정창희, 이형룡, 2014, 양은주, 2015)에서도 전공만족도가 학습몰입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을 다시 입증하였다.[8]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를 결정하는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며 이 역시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고 진로 계획을 실천해 가는 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2.3 실용음악과 교육과정 구성요소

실용음악전공은 학교마다 다양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과과정은 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으로 분류되고 이론과 실기, 전공별, 학기별로 구분되어 있다. 실용음악과의 이론 과목은 음악이론, 제즈화성학, 작곡법, 뮤직비즈니스, 교양교과목으로 구성되어 학기별 2과목~3과목 비율을 보이고 있다. 실기 교과목은 입학 전공자 개인에 해당하는 전공실기 중심의 앙상블(합주)을 이루는 과목들로 구성되어, 매 학기 있으며 과목에 1,2,3,4 순서로 레벨을 높이거나 음악 장르로 분류하여 앙상블, 즉흥연주 개념을 적용하여 과목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론 교과목 시수는 과목당 2시간이며, 실기 교과목 시수는 과목당 1시간부터 3시간 까지 운영하고 있다. 과목별 비율을 보면 3:7 비율로 실기 과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모든 대학이 강의실내 실기이며, 강의실 밖 실기(실습)는 연주회 또는 졸업 연주(작품)라는 과목명을 사용하고 있다.

2.4 자기효능감 관련 교과목

현재 4년제 대학 4개, 2-3년제 대학 4개 학교의 교과목을 중심으로 자기효능감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4개의 기준으로 교육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보적 근원을 성공경험(Enactive mastery experiences), 대리적 경험(Vicarious experiences), 언어적 설득(Verbal persuasion), 생리적 상태와 정서적 상태(Physiological and affective states)[9], 로 교과목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성공경험(Enactive mastery experiences) 관련 과목으로 전공실기, 앙상블, 졸업연주, 컴퓨터 음악 등의 실기 과목에서 과제를 수행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성취감, 자신감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도한 결과 성공과 실패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자기 효능감이 달라질 수 있음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8개 학교 모두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둘째, 대리적 경험(Vicarious experiences) 관련 과목으로 전공세미나, 마스터 클래스에 해당되며 타인의 성공과 실패, 대리 경험에 의해 자기효능감이 영향을 받는 기준이다. 8개 학교에서 2개 학교만 진행하며, 나머지 학교에서는 특강이라는 대체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셋째, 언어적 설득(Verbal persuasion)은 타인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잘 해낼 수 있다는 말을 얼마나 자주 듣느냐에 따라 자기효능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정보로 기술되어 있는 교과목은 없다.

넷째, 생리적 상태와 정서적 상태(Physiological and affective states)는 불안, 좌절 등과 같은 정서적 반응 그리고 그것을 적절히 조절하는 능력에 의해서 자기효능감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여기에 해당 되는 정보로 기술되어 있는 교과목은 없다.

교육과정의 교과목은 음악적 기술과 개인 능력의 실기 교육에 중점이 되어 있으며, 삶의 많은 목표수행에 필요한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기술을 효과적으로 조직하는 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과정 교과목 개발이 요구된다.

3. 결론

입학 사정의 실기 우수자로 입학한 학생들은 학업 초기 실기 교과목을 통하여 자기효능감이 높으나 학습 과정에서 또 다시 경쟁하고 평가받는 상황에 대한 좌절감이 개인마다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으나 심리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해결해 줄 수 있는 언어적 설득, 생리적 상태와 정서적 상태를 살피거나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교과목 개발이 되어야 한다. 자기효능이 높을수록 전공 학습에 대한 만족도와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탐색하고 실천 가능한 계획으로 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기 위주의 전공 교육과 더불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균형 있는 교과목 개발 연구가 실용음악전공 학생이 사회에서 건강한 직업인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겠다.

참고문헌

- [1] 서울대학교 교육학연구소, “교육학용어사전”, 하우동설, 2011년.
- [2] Taylor, K. and Betz, N. E., “Application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 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22-1, pp. 63-81, 1983.
- [3] Bandura, 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Vol.84-2, 191-215, 1977.
- [4] Bandura, A.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335-453, 1986.
- [5] Bandura, 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Vol.84-2, 191-215, 1977.
- [6] Hackett, G. and Betz, N. E.,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18, pp. 326-339, 1981.
- [7] Taylor, K. and Betz, N. E., “Application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 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22-1, p. 63-81. 1983.
- [8] 김선화, 박상연,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 15-3, pp. 1557-1565. 2014.
- [9] Bandura, 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Vol, 84-2, 191-215. 1977.